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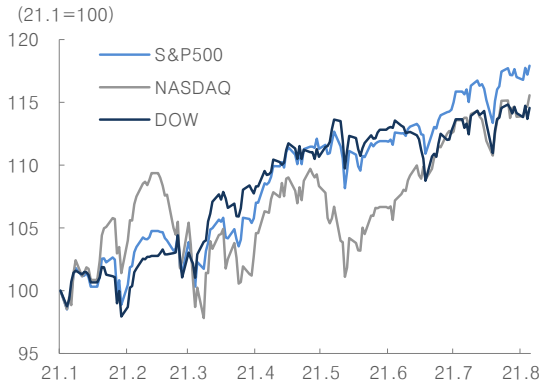
Global Strategy

눈치 보는 미국 증시, 고용과 물가 사이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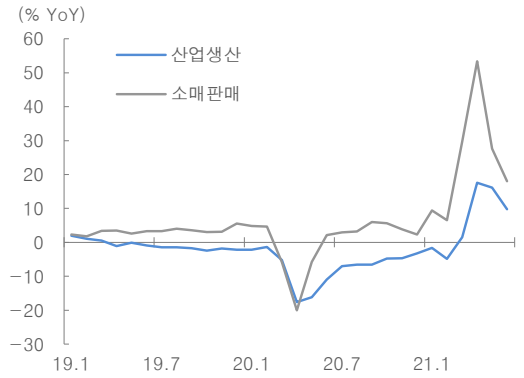
- 미국 증시는 과연 고용의 편에 설까? 물가의 편에 설까? 8월 들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눈치를 살펴야 할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 6일 발표되는 7월 고용지표와 11일 발표되는 7월 소비자물가(& 근원소비자물가)로 고용의 편에 선다면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 압력을, 물가의 편에 선다면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안도에 상승 압력을 받는 양갈래에 놓이게 된다.
- 6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전월치 93만 8천건을 상회한 94만 3천건 증가, 실업률은 전월 5.9%에서 0.5%p 감소한 5.4%로 집계됐다. 미국 드라이빙 시즌 진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절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시기임에도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의 해석은 매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높인다. 7월 FOMC를 통해 테이퍼링 조건 충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언급은 고용지표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미달한다는 의미인 만큼, 남은 하반기 동안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테이퍼링 일정은 좌우되게 된다. 결국 고용지표가 잘 나올수록, 테이퍼링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로 8월 연준 월러 이사의 고용 증가가 양호하면 10월부터 테이퍼링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닌 것이다.
-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CPI(&근원CPI)는 전년동월대비 5.3%(4.3%) 증가로 전월치 5.4%(4.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6월 CPI 발표후 변동성이 커졌던 미국 증시와 달리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높은 기저에 따른 낮은 증가율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연속성을 갖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상반기만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하면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만큼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있다는 비둘기적 해석으로 시장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8월 시작의 긍정적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재현되는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다.
- 현 시점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은 9월 FOMC를 통해 테이퍼링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하고 12월 FOMC를 통해 공식적인 선언, 그리고 2022년 1분기에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 7월 고용지표 호조는 9월 FOMC를 통해 선제적 안내를 예상하는 시장의 생각이 현실화되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물론 9월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가 연속성을 가질 경우 거의 확실시 된다. 물가는 이미 연준의 2가지 책무 중 하나인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올해 크게 오른 만큼, 고용이 8월부터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8월 말 잭스홀 미팅에 이어 9월 FOMC까지 테이퍼링과 관련된 노이즈가 8~9월 증시흐름에 가장 영향을 끼칠 빅마우스가 될 만큼, 8월 미국 증시는 과거 계절적 패턴과 비슷한 약세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8월 약세는 4분기 미국 증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에너지 응집 구간이 될 것이다.

그림 1.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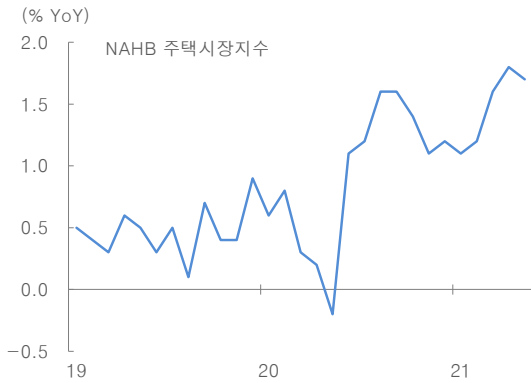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미국 산업생산,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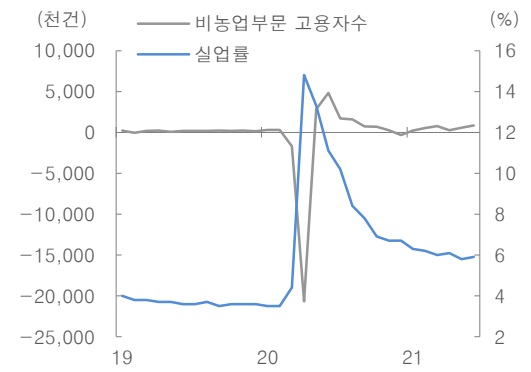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국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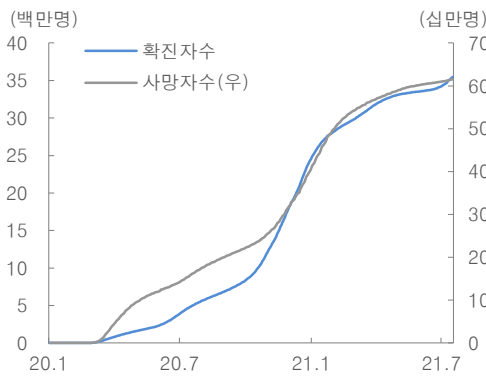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미국 7월 고용지표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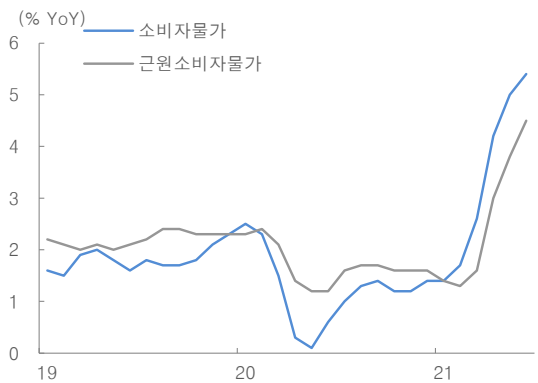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미국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미국 7월 물가지표(CPI) 둔화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문남중)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